

오륙도 칼럼



이 무 현

지난 10월 정년퇴직을 했다. 고마운 정년이다. 햇수로 31년, 유장한 세월을 한 직장에서 보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 세대가 바뀌는 세월을 온전히 한 직장에서 보냈다. 스스로 자랑스럽고 긍지가 느껴진다. 무엇보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기쁘다.

근래엔 세상의 변화만큼 직장 문화도 많이 변했다. 들고 난 사람은 물론, 시스템도 아날로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압축 세상을 경험한 것 같다. 눈치도 없고, 순발력도 떨어져 급변하는 문화에 겨우 겨우 살아남았다. 그 와중에 기다린 정년퇴직을 하게 되니 안도와 긍지가 느껴진다. 또한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더없이 기쁘다.

돌아켜보면 외환위기와 계속되는 불경기에 자의반 타의반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난 동료들의 젖은 눈망울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있을 수 없다. '집에 들어왔을'지 이제 겨우 한 달, 일벌레처럼 살다가 두부모 자르듯 하루아침에 '일없는 날'을 맞고 보니 희망보다는 한장 일

할 나이에 밀려 났다는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보람, 막막함 등 심경 복잡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 비로소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살아 왔던 삶이 보람보다는 오히려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오늘날 직장인 70~80%가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을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다. 필자 역시 전하(?) 노후 대책에 소홀한 탓에 당장 가정경제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인생을 미리 살아 볼 수 있다면 이런 생활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갔고, 퇴직은 하고 말았으니 살아

갈 날이 걱정이 앞선다. 50대 후반에 퇴직하고 보니 노후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식을 전혀 받을 곳도 전무하다시피 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투자나 사업을 할 처지도 못 되니 이래저래 고민만 깊어 간다.

100세 시대와 노후의 삶을 걱정하는 오늘, 인생 2막에서 3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성까지 주목 받고 있다. 인생 2막과 3막의 커튼 뒤에 초라하게 서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위해 일감을 만들어 주는 삶맛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평생 직업의 시대'에 살아가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새롭게 돌아보고 꼼꼼히

짚어 봐야겠다. 정년퇴직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초년병으로 재입사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마도 직장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제는 '즐거는 직업' 찾아야

한창 일 할 때는 며칠만이라도 쉼 쉬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막상 계속 되는 '일 없는 날'을 맞이하고 보니 어떻게 해서 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일 없는 날이 고되고 낭만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 사진이 제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절없이 해 본다.

신선대

<226>

채 규홍



연론인 겸 사진작가



선용의

1000자 지혜

126

왕의 자리

제(齊)나라의 선왕(宣王)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맹자가 제 나라에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선생, 마침 잘 오셨소. 평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선생의 고견을 들어 참고할까 하오. 옛날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은 백성들을 못살게 하고 도리어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였기에 천을(天乙)이라는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천을은 걸왕을 죽이고 은(殷)이란 나라를 세워 탕왕(湯王)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의 30대 제 왕인 주왕(紂王)은 주자육림(酒池肉林)에 빠져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밑에서 일을 보던 발(紂)이 보다못해 주왕을 멸하고 새로 주(周)나라를 세워 무왕(武王)이 되었습니다."

맹자의 말을 듣고 있던 선왕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 신하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죽이는 일을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인은 모시고 있는 왕을 죽이고

신하가 새 나라를 세워 왕이 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선생은 그럴 수 있다고 하니 이해가 안가는군요."

"사람, 즉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든지 또 바른 정치로 백성을 안락하게 하지 못하는 왕을 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신하가 왕을 죽이고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반역이라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지 않겠소?" "왕의 편에서 보면 그럴 겐죠. 그러나 백성 없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죽이고 은(殷)이란 나라를 세워 탕왕(湯王)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의 30대 제 왕인 주왕(紂王)은 주자육림(酒池肉林)에 빠져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밑에서 일을 보던 발(紂)이 보다못해 주왕을 멸하고 새로 주(周)나라를 세워 무왕(武王)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위치에 서 모두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앞장 서 봉사해야 할 책임이 나가지 더 있을 뿐이다. 조직 사회의 리더도 마찬가지이다.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의료용어 쉽게 썼으면

가끔 병원에 들러 의사들의 진료 기록을 보면 아직도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경우를 상당히 보게 된다. 가령 '기관내 관을 폐내 인공호흡을 중지하였다' 라고 쓰면 될 것을 '기관내 삽관제거를 함으로써 인공호흡으로부터 완전이탈을 실시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급성 폐도선염의 일반적 증상

은 열이 나고 목구멍이 아프며 삼키기 힘들고 목구멍 주변이 빨갛게 보이며...'라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것을 '급성 폐도선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발열 및 인후통과 연하장애이고 폐도선 부위의 충혈 및 발적이 나타나며...'라고 적는다.

난해한 표현을 써야 권위가 선다고 여겼지 모르지만, 일반국민들도 자신의 병명이나 증세를 쉽게 알 권리가 있다.

우왕화(문현3동)

남구 출신 예술가 작품 전시공간 있었으면

남구는 여러모로 문화적 역량이 있는 곳이다. 부산의 주요 대학들이 주변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예술계 종사자가 남구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문화적 역량이 실제로 공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상업시설들이 장악한 경성대 앞 변화가를 지나면서 좀 더 다양한 공간이 이곳에 있을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남구와 인연이 깊은 사진작가 최민식, 화가 이중섭 등의 작품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기점으로 남구의 문화적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문화자료들을 취합하면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우화(대면1동)



안녕!우리말

'안녕! 우리말'은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캠페인입니다.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정답게 맞이하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떠나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특별기고

이기대의 전설, 사실은 역사 현장이었다

이기대의 전설에는 대략 세 가지 설이 전해져 왔다. 애첩설(愛妾說), 의기설(義妓說), 이기총설(二岐塚說)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전설이 이기총설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2년 뒤인 봄에 동래부 기생들이 순절한 두 기생의 무덤 앞에서 무릎꿇고 울었다고 한다. 여기에 좀 더 신빙성을 더하자면, '의부지(義婦地)'라는 묘소 지명도 있다. 굳이 풀어보자면 '의로운 여인이 묻혀있는 곳에서 가까운' 정도가 아니겠는가 싶다. 실제로 이곳은 이기총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기록은 용소(부경대학교 정문 앞대)의 전신인 고이리(古李里)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경주 이 씨 집안의 족보에 등장한다. 동 문종의 입향조는 약 550년 전의 인물로 추정되는 이항진이라는 어른이며, 고이리는 선조 35년(160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용소동에 서 275년째 대를 이어오고 있는 개성 왕 씨 집안 족보에 나타난 이부흥이라는 묘소 지명 역시 이기대를 가리키고 있다.

이와 다른 이야기로, 왜군이 우암만에 상륙하던 1592년 4월 13일, 경좌수사 박흥은 좌수영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반면 하루 전날인 4월 12일, 왜군이 절영도 앞바다에 새카맣게 물러와 정박해 있을 때 용호동 급선 김세 임향조 원실공 대감은 무장을 하고 바배 집을 나섰다. 훗날 다대진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밝혀져 동반 종2품 가산대부 호조참판으로 추서되었다. 그리고 258년의 세월이 흐른다. 이항하라는 분이 경좌수사사로 부임해 왔다가 임기를 마치고 우부승지 겸 경원참찬관에 제수되어 한양 도성으로 올라간다. 그는 이때 좌수영성의 군역 및 편제 등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내영지(叡寧誌: 동래영지)를 편찬해 냈다. 이 내영지 산전초에 적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투신한 두 자매 기생의 의로운 순절을 추경제 하는 '이기총'이 언급돼 있다. 이기대의 유래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임금을 수시로 알현하는 위치에 오른 그가 군사기밀이 적힌 내영지를 소홀히 다루었을 리 없다고 본다면, 이기총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그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그는 부산포 앞대의 9개 읍지를 관장하는 고을 수령이면서 오늘날 합대령관에 비유되는 벼슬에 있었다. 그가 경좌수사사로 오기 전에는 대제첨사로도 근무했다. 또 그의 망형이 경좌수사사를 지냈다. 부산, 특히 좌수영과 인연이 매우 깊은 그가 이기대의 유래를 잘 알았을 것으로 믿어지는 이유이다. 적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두 여인의 순절은 군사 전략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경좌수사사 이항하가 개인적 공적을 적으면서 장수 다음에 두 여인을 '기합'으로 당당히 표현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 추정된다. 그럼에도 그는 이기총을 가리켜 '좌수영성에서 15리 남쪽에 두 기생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두 기의 큰 무덤이 있다 카더라'라며 간접화법을 구사했다. 왜 그랬을까? 고위 공직자로서 신중하다는 점 외에 임진왜란이 끝난 지 무려 258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우리로서도 사실 420여 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의 일을 추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기총 외에도 석벽에 새겨진 '이기대' 세 글자와 각시당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이들 각각의 현장들을 수 없이 답사하며 결론을 얻기까지 뜻 있는 남구 주민 세 사람이 2년 넘는 시간을 들였다. 그 결과물이 '소설 이기대'라는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 되었다. 이른바 문화원형을 찾는 일에 외부 지원 없이 그 일을 진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기대의 전설이 실제로는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확인이 들면서 그동안의 여러움도 담담히 사라질 수 있었다. 향토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이기대에도 원형스 토리가 있다. 역사 현장으로서의 재조명에 시선을 돌리면 어떨까 싶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면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남구도서관 2015년 겨울방학 특강 <문의 ☎607-6562>

※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강좌명	기간	연시	대상 및 인원	수강료 (재원비환)	접수일 (종료까지 접수)
나만의 학습방법 배우기	12.12~12.26 (3회)	18시~20시	중학생(15명)	무료	11.25 10:00부터
자유롭게 생각하고 마음껏 글쓰기	1.6~1.22(6회)	화, 목 10:00~12:00	초등 1~2(20명)	6천원	12.12 10:00부터
사회고사서 숙점지킴	1.6~1.22(6회)	10:00~12:00	초등 3~4(20명)	6천원	10.30부터
이이기로 떠나는 한국사 여행	1.7~1.23(7회)	수, 금 10:00~12:00	초등 5~6(20명)	6천원	12.12 11:00부터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여행	1.3~1.24(4회)	토 10:00~12:00	중학생(20명)	4천원	12.12 11:00부터
나는 교과과외자	1.3~1.24(4회)	10:00~11:30	초등 1~2(20명)	4천원	10.30부터
어린이 과학교실	1.3~1.24(4회)	토 11:30~13:00	초등 3~4(20명)	4천원	10.30부터

산타라가 물 떠나자

산행을 떠나요



(2014. 12.)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산산악회	12/14(일)	경주 고위산	010-9979-0702
	대오산악회		미정	010-2559-2086
	청암산악회	12/10(수)	거제 망산	010-6778-3192
	약천산악회	12/17(수)	전남 정읍 천관산	010-4655-4370
	오륙도민주산악회	12/6(토)	전북 덕유산	051-621-6444
용호동	용산산악회	12/28(일)	전남 해남 두루산	010-3586-6161
	용호산악회	12/28(일)	안동 천지각산	010-2593-0361
	제일산악회	12/7(일)	부산 상화산	011-594-4192
	여명산악회	12/7(일)	경남 의령 자곡산	010-3554-4392
	화계산악회	12/7(일)	전남 조계산(송광사)	010-3575-3448
	용산산악회	12/14(일)	충북 영동 마니산	011-488-3307
	대산산악회	12/7(일)	영동 월류봉	010-3870-2660
	관악산악회	12/7(일)	함천 매화산	010-3865-9051
	기산산악회	12/14(일)	경남 거창군 금귀봉 보해산	010-6266-8525
	부산산악회	12/7(일)	해운대 장사 송녀사행	010-7223-2277
용당동	청산산악회	12/7(일)	수전 조계산 장구봉	010-8008-2087
	한울리산악회	12/14(일)	안동 천지각산	010-7650-1984
	여남산악회	12/14(일)	남해 금산	010-4553-6615
	문화산악회	12/28(일)	여왕 산불사	016-564-8882
감만동	용마산악회	12/14(일)	개별 통지	010-3924-0177
	녹색산악회	12/28(일)	전남 곡성 동악산	010-7343-3426
	굴포천산악회	12/21(일)	통영 소매물도 (동대굴)	010-8287-1192
	물거문산악회	12/28(일)	간해 정동산	010-2387-1133
우암동	우암산악회	12/21(일)	무주 덕유산	010-7520-6866
	우암산악회	12/7(일)	경남 함양 황석산	010-3557-2847
	한울산악회	12/28(일)	거창 마니봉	010-8524-8224
	우암산악회	12/28(일)	수전 낙아봉	010-6570-4488
문현동	문산산악회	12/14(일)	전북 지리 마니산	051-631-9001
	문현산악회	12/14(일)	경북, 충북, 전북 산도봉	010-3178-3065
	원북리산악회	12/21(일)	남해 금산 보리암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4. 11. 21.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하늘누리협동조합	용당동	재가요양보호사	1명	14.11.20~채용시	시급 7,125원	051-637-0052
제이알 로지스틱	대연동	물류운송	1명	14.11.20~채용시	월급 150만원	051-611-5653
범양버스	대연동	마물버스기사	2명	14.11.20~채용시	월급 170만원	051-611-1774
태림개발	문현동	캐드시무원	1명	14.11.20~채용시	연봉 2,200만원	051-633-3775
비트메트	문현동	청원경찰	2명	14.11.20~채용시	월급 220만원	051-413-3000
에센트스	대연동	빌딩정기원	1명	14.11.19~채용시	월급 180만원	051-714-2302
금호마린테크	남구	행정지원	○명	14.11.19~채용시	연봉 2,000만원	051-293-8589
케이비이엔씨	문현동	전기내선	1명	14.11.19~채용시	월급 250만원	051-759-8638
경성정비	대연동	정비기사	○명	14.11.20~채용시	월급 120~140만원	051-622-1700
폴	문현동	웹개발자	1명	14.11.20~채용시	연봉 2,400만원	051-924-0404
강남씨엔에스	감만동	철강포장	6명	14.11.20~채용시	시급 5,210원	051-640-5863
오륙도요양병원	용호동	간병인	3명	14.11.20~채용시	월급 150만원	051-647-7007
대한민국 집집	대연동	회계, 경리	1명	14.11.20~11.27	연봉 1,400만원	051-610-0882
W창	용호동	커튼 블라인드시공	4명	14.11.21~12.31	월급 130~200만원	055-346-7846
유니에스	문현동	안내, 접수사무	2명	14.11.19~12.03	월급 140만원	051-806-0453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